

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	http://www.mke.go.kr
‘11년 6월 17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자료문의 : 신산업표준과 안종일 과장(509-7294), 오광해 연구관(509-7294) 주력산업표준과 박주승 과장, 이선희 연구사(02-509-7275)	

한-중 스마트그리드 시장확보, 표준으로 견인한다

— 미국, EU에 이은 민간표준협력 채널 마련 —

- 국내 스마트그리드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**미국, EU와의 기술 협력에 이어 한-중 양국간 정부차원의 양자협력 및 민간차원의 다자 협력**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,
 - SK이노베이션, LG전자, 삼성전자, LS산전, 효성중공업, 한국전력, LS전선 등 28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스마트그리드협력단(대표 : 기술표준원 김무홍 지식산업표준국장)이
 - 중국 중앙정부인 국가표준위원회(SAC)와 스마트그리드산업 투자 및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국영전력망공사(SGCC) 등을 방문하여 양국업계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기술표준 협력회의(6.14~6.17, 북경, 덕주, 심천)를 가졌다고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(원장 허경)은 밝혔다.
 - 이번 협력의 중점 추진사항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민간표준협력 채널을 마련하고 업계간 실질적인 기술·표준·비즈니스 연계활동을 지원 하는 것이었다.
- (정부간 협력) 민간 기업들간의 표준협력채널 구축을 위해 양국 정부간(韓기술표준원 - 中國가표준위원회) 기술표준에 관한 다양한 합의가 이루어졌다.

- 스마트그리드 기술표준 협력을 위한 중점협력분야 선정
 - * 스마트미터, 전기차 충전인프라, 신재생에너지(풍력포함), 초고압직류송전(HVDC), 에너지관리시스템(저장장치 포함), 스마트가전 등 6개 분야
 - * 특히 중국은 스마트가전 분야의 양국 산업체간 표준 협력에 적극적인 관심 표명
 - 기술표준협력의 효과와 지속적 운영을 위한 **컨트롤 타워로서 양국 코디네이터 중심의 “Joint Coordination Committee” 신규 구성**·운영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협정문 체결을 합의
 - * 양국 정부간 SG 기술표준 정책이슈, 표준프레임워크 진행상황의 정기적 교환·검토, 국제표준화 협력 등 (연 1회를 원칙으로, 동북아포럼과 병행 개최)
 - SG 표준 관련 정보 및 경험공유를 위한 공동 워크숍, 세미나, 심포지엄, 훈련 및 연구시찰 등 **정보교류 프로그램 추진**
 - * SAC과 KATS는 SG 표준 및 전문적 기술에 대한 정보교환(연 1회 이상)
 - 자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**SG 표준 및 기술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와 사업참여** 가능 여부에 대한 정보제공
- (민간협력) 또한 韓-中 양측업계는 상호간의 강점분야를 활용하여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협력활동을 전개했다.
- 특히, 전력에너지저장시스템 분야에서의 상호협력에 대한 양국 업계의 관심이 가장 높았다.
 - 「전력저장용 배터리 및 에너지관리시스템 공동개발 및 보급」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키로 합의
 - 중국은 「전력계통연계용 전력저장에너지시스템」에 대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증사업과 향후의 실증사업에 한국 참여를 제안

- 그 밖에 **삼성전자, LG전자는** 「스마트가전과 HEMS를 포함한 홈 수용가 내부 네트워크 기술표준」에 관한 협력을, **LS산전은** 스마트미터를 포함한 **계량인프라분야 제품 공동개발에 관한 협력을** 구체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

* HEMS : Home Energy Management System

- 한편, 韓-中 전기차 충전인프라 업체들은 충전기 표준화 정보공유 및 협력사업 구체화 필요성을 공감하고 향후 협력가능 분야 공동 발굴에 합의

□ 금번 중국과 기술표준 협력을 통해,

- 양국 업계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실익있는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.
- 특히, 중국업계는 IT 강국이고 신규산업 발굴에 적극적인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적극 환영하면서, **지리적인 인접성 등을 활용한 구체적인 비즈니스 협력으로 발전하기를 크게 기대했다.**

□ 향후 기술표준원은 국내 관련 업계에 축적된 풍부한 기술 노하우를 십분 활용하여 스마트그리드 미래시장으로 부각된 **동남아, 일본 등과의 전략적 기술표준 협력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**